

HMS, 친환경·디지털전환 확대... “5년 내 영업익 2배 성장”

(HD현대마린솔루션)

내달 IPO 앞두고 미래 비전 공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에 속도
물류센터 구축에 544억 투자 단행

“조선산업과 관계없이 우리는 향후 5년 안에 매출·영업이익 모두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내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이하 HMS) 사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HMS는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내고 있는 선박 애프터마켓(AM) 수요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디지털솔루션 사업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우리 사업은 조선 산업의 시클릭(Cyclical·주기를 두고 순환하는)한 측면과 달리 대외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며 “우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HMS는 HD현대그룹 차기 총수인 정기선 부회장 주도로 2016년 설립된 회사다. HD현대중공업에 있던 선박 AM 부문을 좀더 체계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분사했다. 출범 초기인 2017년만 해도 2403억원에 불과했던 HMS의 매출은 2018년 4145억원, 2019년 8090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조4305억원으로 6년 만에 6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46억원에서 2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사장은 HMS가 앞으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선업이 수주 불황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흔들림없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선수인 해운사가 운항을 멈추지 않는 한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가 2일 HD현대 GR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사장은 “조선과 AM은 같은 밸류체인 내에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별개의 비즈니스”라며 “물론 많은 배가 제작되면 시장도 더 커지지만 조선산업 불황기에도 AM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AM 시장 내에서 HMS는 최상의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세계 1위인 HD현대의 밸류체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감 부족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없다. 특히 전세계 4행정 엔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진 힘센엔진의 부품 관련 서비스는 HMS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장은 “HD현대중공업의 대형 엔진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45% 정도 되고, 독자 모델인 힘센엔진의 점유율은 40% 정도 된다”며 “특히 가장 핫한 이중연료 최신 모델의 경우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HMS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솔루션 사업을 지목하고 기술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장 시스템을 통한 선박 자동화 제어 확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연료 공급시스템 적용, 전기추진 등 전동화 전환, 선박 운

용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장비 수요는 선박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HMS는 IPO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HMS는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총 6524억~7423억원의 공모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그중 2대 주주인 KKR(사모펀드)의 구주매출(전체 공모주의 50%)을 제외한 유입 자금 대부분인 3225억여원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글로벌 AM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물류센터 구축 및 국내외 항만 창고 확보에 544억원을 투자하고, 타법인 엔진 AS 사업부 인수에 424억원, 포털·클라우드·재고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자금에 221억원, 글로벌 수리조선업체 지분투자 및 선박관리회사·설계회사 인수 등에 2036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번 상장을 통해 우리는 또 한번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효성티앤씨, ‘바이오 원료’에 1조 투자 단행

20만톤 바이오 BDO 공장 건설
“바이오 사업 100년 핵심 주축될 것”

효성티앤씨가 바이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미래 신사업 육성에 나선다.

3일 효성티앤씨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남부 바리우붕따우성 푸미2공단에서 열린 ‘바리우붕따우성 비전선포식 및 투자승인서 수여식’에서 베트남 바리우붕따우성 정부로부터 ‘효성BDO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서를 받았다.

BDO(부탄다이올)는 스파텍스 섬유를 만드는 PTMG(폴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의 원료 등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다. 최근에는 자동차내장재(TPU), 산업용 컴파운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현지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0만톤의 바이오 BDO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바이오 BDO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당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제조해 석탄 등 기존의 화학 원료를 100% 대체한 제품으로 친환경 소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오른쪽)과 전홍하 베트남 부총리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회사는 현재 베트남에 PTMG와 스파텍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원료부터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바이오 스파텍스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효성티앤씨는 우선 2026년 상반기부터 연산 5만톤 규모의 바이오 BDO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존 화학 원료를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는 바이오 사업은 100년 효성의 핵심 주축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BDO와 바이오 스파텍스 일관생산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 공략을 강화해 효성의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구광모 “기대 넘어선 경험·삶 변화 추구”

(LG그룹 회장)

2024 LG 어워즈 개최
고객 감동 대상 4팀 등 98팀 수상

LG가 지난 2일 경기 이천 LG인화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제품,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2024 LG 어워즈’를 열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기대를 넘어선 경험과 삶의 변화가 LG가 추구하는 혁신”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3일 LG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구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고객 심사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에는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

구 회장은 “LG 어워즈는 고객들이 차별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시는 상”이라며 “수상자들이 이뤄낸 혁신이 더욱 발전되고 확산돼 더 많은 고객에게 감동의 경험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최초·최고의 기술, 제품,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를 넘어선 경험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느꼈을 때 고객은 차별적 가치를 인정해 준다”며 “이것이 LG 어워즈가 추구하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LG는 올해 LG 어워즈에서 처음으로 구성원 심사제를 도입했다. 구성원 심사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가치 혁신 사례를 심사한다는 취지다.

지나해 LG는 고객 심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는 기존 MZ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던 고객 심사단을 전문가, 주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오른쪽)가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수상팀을 축하하며 격려 박수를 치고 있다.

부, 외국인,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 및 직업군으로 늘렸다. MZ 세대뿐 아니라 LG의 제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올해 LG 어워즈에서는 최고상인 고객 감동 대상 4팀을 비롯해 고객 만족상 46팀, 고객 공감상 48팀 등 총 98팀, 724명이 수상했다.

LG는 출품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적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철저히 고객의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고상을 선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객 감동 대상을 수상한 LG전자의 LG 시그니처 올레드 M 개발팀이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은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을 없앤 무선 올레드 TV다.

개발팀은 TV에 콘솔기기, 셋톱박스 등 다양한 외부기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고객들이 TV 주변 복잡한 연결선을 지지분하게 느끼는 데 대한 불편 사항에 주목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현대차·기아 “어디든 로봇이 배달가요”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 공개
사무실·쇼핑몰 등 복잡한 곳도 가능
무게 중심 하단에 뒤 주행 안정성 ↑

사람이 있는 곳까지 식음료 또는 물품을 빠르게 배달해 편의를 높여주는 배송 로봇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현대차·기아는 3일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의 새로운 디자인 이미지와 슷폼 영상을 공개했다. 달이 딜리버리는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 복잡한 공간에서도 물건 배달이 가능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으로, 2022년 12월 현대차·기아가 공개했던 호텔 배송 로봇을 개선해 개발했다.

현대차·기아는 달이 딜리버리를 모서리가 둥근 사각기둥 형태로 디자인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센서를 최소한으로 노출하고, 무게 중심을 하단에 뒤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달이 딜리버리는 4개의 PnD(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을 기반으로 성인 평



현대차·기아가 공개한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

균 걸음 속도인 4.32km/h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달이 딜리버리는 봄비는 공간에서도 장애물을 인식하고 빠른 회피 주행이 가능하며 10kg까지 박스 형태의 물건이나 최대 16잔의 커피를 실을 수 있다.

특히 달이 딜리버리는 건물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스스로 건물 전체 층을 오가며 배송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또 실시간 최적 경로 형성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배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령 대상자를 인식해 알아서 자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카메라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목적지, 운영현황 등 서비스 상황을 나타내는 11.6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도 장착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2분기부터 이차전자산용의 ‘팩토리얼 성수’에 달이 딜리버리를 최초로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앞으로 사무실, 쇼핑몰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공간 맞춤형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